

6년 만에 돌아온 '더 K9'... 더 웅장하고 더 똑똑해졌다

기아차 풀체인지 모델 공개

대형세단 벤츠·아우디와 정면승부
첨단기술·감성 편의사양 대거 적용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K9의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하고 국내 대형 세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 출신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의 상승세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차의 후륜구동(뒷바퀴굴림) 대형 세단 K9은 강한 심장(엔진)과 뛰어난 연비, 첨단 장치로 무장하고 벤츠E클래스, BMW 5시리즈와 정면 승부에 나선다.

기아차는 20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더 K9 전용 전시·시승 공간인 '살롱 드 K9'에서 미디어를 대상으로 차량 핵심 사양과 가격대를 공개하고, 사전 계약에 들입한다고 밝혔다.

2012년 첫선을 보인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더 K9은 '기술을 넘어 감성으로'라는 개발 방향 아래 '감성, 품격, 기술을 결합한 플래그십 세단'을 목



기아차 신형 'K9' 전측면 모습.

표로 개발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차 외장 디자인은 응축된 고급감과 품격의 무게'를 디자인 콘셉트로, 품격 있는 럭셔리 세단의 위엄과 기품을 강조했다. K9 전면부는 풍부하고 섬세한 후드의 면 처리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웅장하면서 고급스러운 인상을 구현했다.

2세대 K9은 전장 5120mm, 전폭 1915mm, 전고 1490mm, 축거 3105mm로 기존 K9대비 차체크기를 한층 강화해 웅장한

이미지와 여유로운 공간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K9은 뛰어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우아한 인테리어와 세계 유명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프리미엄 감성 요소, 최고급 내장 소재 등을 통해 감성적이면서도 기능적인 프리미엄 실내 공간을 구현했다.

K9은 국산 고급차 최고수준의 첨단 주행신기술과 지능형 감성 편의사양을



기아차 신형 'K9' 실내 모습.

대거 적용해,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극대화된 '고급 오너드리븐 세단'으로 재탄생했다. K9은 ▲차로유지보조(LFA) ▲후측방모니터(BVM)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 A) ▲터널연동 자동제어를 국산 고급차 최초로 도입했다.

K9에 탑재된 첨단 주행 신기술은 국산 차에만 적용 가능한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도로환경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

K9은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개인화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포함한 차량 IT 신기술을 대거 적용해 직관적이고 스마트한 사용자 경험(UX)을 제

공한다. 국산 대형세단 최초로 적용된 '12.3인치 UVO 3.0 고급형 내비게이션'은 넓어진 흡 화면에서 다양한 위젯과 메뉴로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원하는 곳으로 재배치도 가능하다. 또 우측 분할 화면을 통해 화면 간 이동 없이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면서 미디어, 공조, 날씨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더 K9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나 길 안내를 받는 중에도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아이)의 음성인식 서버를 활용한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검색 정확성을 높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의 경우 집안에서 미리 주행경로를 설정해 차량으로 정보를 전송하면 차량에 탑승해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운전자의 편리한 조작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내부 스위치도 91개에서 73개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K9은 ▲3.8 가솔린 ▲3.3 터보 가솔린 ▲5.0 가솔린 등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을 선보인다. 가격은 5490만~9380만 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RV 美서 쾌속질주... 두달새 7.7만대

단순 판매보다 실리 챙기기 전략 RV 비중 높이며 수익성 개선나서

현대·기아자동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단순히 판매량 증가에 힘쓰기보다 실리 챙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판매 비중을 보면 판매 단자가 높은 레저용차량(RV)의 판매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미니밴을 합한 RV만 총 7만7067대를 판매했다. 이는 승용(세단)과 RV를 합한 현대·기아차의 전체 판매(16만3637대)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1% 수준이다. 미국에서 팔린 현대·기아차 2대 중 1대는 RV였던 셈이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RV 판매 비중은 최근 상승세다. 판매비중이 2010년 40.3%에서 2013년 31.4%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46%까지 올랐다. RV 판매대수도 2010년 36만229대에서 지난해 58만7178대로 68% 증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했다.

RV는 판매 단기가 높은 차종이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 현대·기아차도 RV 판매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 판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RV 라인업을 본격 확장한다. 현대차는 상반기에 코나, 하반기에 신형 쌍타페와 투싼 부분변경 모델을 각각 출시한다.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과 수소전기차 네쏘 등 친환경 SUV 2개 차종도

올해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 내년에는 코나보다 작은 소형 SUV와 쌍타페보다 큰 대형 SUV까지 내놓을 방침이다.

기아차는 올해 쏘렌토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니로의 전기차 버전인 니로 EV를 선보일 예정이다.

미국 시장에서 RV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만큼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해 1~2월 미국 내 RV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는 0.8%, 승용 판매는 11.9%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존 앤저빈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세일즈 디렉터는 "전체 매출 가운데 39%를 SUV에서 끌어내고 있다"면서 "올해 SUV 시장에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UN본부에서 실시한 차량입찰에서 일본·미국 업체를 제치고 12백만불 규모의 기관차량을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해외영업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 아니냐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수소전기차 네쏘 주행모습.

'넥쏘'가 쏘아올린 수소車시대 예판 하루 만에 733대 몰려

첫날 물량에 정부 보조금 동나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현대차에 따르면 예약판매를 시작한 19일 하루에만 733대가 접수됐다고 한다. 올해 정부가 240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첫 날 접수만 보면 벌써 3배를 넘어선 것이다.

지역별 예약판매량은 서울이 227대, 울산 238대, 광주 156대, 창원 78대, 기타 34대로 분포돼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대차가 네쏘 예약판매 일정을 공개하자 영업점마다 예약 문의가 빗발쳤고, 예약판매가 시작된 19일에는 접수시작과 동시에 1시간 만에 500여 대가 몰려온 때 예약 시스템이 지연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네쏘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올해 한정된 정부 지원금이 종료되면 수소전기차 판매도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올해 책정된 정부(환경부)의 수소전기차 국고보조금은 1대당 2250만원씩 158대에 지급 가능한 액수다. 작년에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약 240대 가량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보조금은 최종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대당 1000만~125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이 지원 가능한 대수 내에서 집행 될 예정이다.

19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고를 낸 서울시의 경우 대당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울산시도 20일 1150만원으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최대 3500만원이 돼 네쏘 모델은 3390만원에, 프리미엄은 37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넥쏘는 현대차의 미래 기술력이 집대성된 친환경차로 1회 충전으로 최대 609km 까지 주행 가능하며,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특징이다. 현대차에 따르면 네쏘 1대는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세대 수소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이 폭발적인 예약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인 수소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친환경차 시장의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 기자

'체인 스트라이크' 유럽 공략... 41개국 출시

컴투스 이달 말 아·북미서도 론칭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자사가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신개념 턴(turn)제 전략 역할수행게임(RPG)체인 스트라이크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41개국에서 정식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인 스트라이크는 이번 유럽 지역 서비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에 나선다. 이달 말 한국을 포함한 아

시아 및 북미 지역 등 전세계에 정식 론칭 한다는 계획이다.

체스의 이동과 공격을 모티브로 탄생한 체인 스트라이크는 200여 종의 캐릭터들의 공격범위를 고려한 자리 배치와 협공시스템 등 폭넓은 전략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

수호자 캐릭터들은 공격, 방어, 체력, 지원 등의 고유 특성을 보유했으며 초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옵션모드 선택이

가능하다.

이밖에 한국과 일본의 유명 성우진이 참여해 풀보이스로 진행되는 스토리 모드, 던전 공략, 전세계 유저와 경쟁하며 최강자를 가리는 승급전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한편, 체인 스트라이크는 현재 유럽 외 지역에서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는 정식 서비스 후 이용 가능한 혜택들을 제공하며,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를 통한 별도 사전 예약 참가 시 중복 추가 보상도 지급한다. /김나인 기자 silkn@